



날으는 홍범도장군

제12호
2017. 3. 15
봄

사단법인 여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03035)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10길 17(신교동) 발행인:이종찬 편집인:홍성덕
TEL: 02)734-8851 ~2 FAX: 02)722-0251 <http://cafe.daum.net/hongbumdo>



기념사업회 2017년도 정기총회, 성황리에 개최

“홍범도장군 학술회의 종합논문집” 발간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2017년도 사업계획 등 의결

사단법인 여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에서는 지난 3월 8일 (수) 낮, 종로구 창성동 소재 돌담길 한식집에서 201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이종찬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기념사업회에 공로가 많은 홍성규 경희대 교수와 송하경 성균관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종찬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기념사업회 창립 이후 매년 개최된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자료를 종합하여 종합논문집을 발간한 것은 매우 의미가 깊고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지난 10여 년간 홍범도 장군을 중심으로 한 무장독립운동을 다각도로 연구하여, 그 결실이 문집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앞으로는 우리 군이 홍범도 장군과 독립군의 헌신적인 독립운동 정신을 배우고, 계승하여 주체적인 자주국방 체제를 갖추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그 동안 기사만 전해오던 “날으는 홍범도장군”에 곡을 부쳐 장군의 업적을 찬양하는 계기를 마련한 홍성규 교수와 기념사업회 회보의 제호를 제차하여 회보를 발간하도록 뒷받침한 우산 송하경 성균관대 명예교수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다.(관련기사 3면)

정관에 따른 안건 처리는 황원섭 이사 진행으로 상정하여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2017년도 사업계획을 의결하였다. 2016년도에는 기부금 수입 1천200만 원, 보조금 980만 원, 전년도 이월금 784만 원 등 합계 2,965만 6,628원의 수입

이 있었다.

지출부분은 봉오동전투 전승96주년기념행사 516만원, 추모식 및 학술회의 1천86만원, 홍범도함 위문금 200만원, 인쇄비 491만원 등 합계 2천622만 8,760원을 지출하고, 342만 7,868원을 2017년도로 이월하였다.

2017년도에는 예년처럼 6월 7일에 봉오동 전승97주년 행사를 서울역사박물관 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10월 25일에는 추모식과 더불어 학술회의를 고궁박물관 강당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날으는 홍범도장군” 회보는 연 4회 분기별로 발행한다. 이에 소요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임원과 회원 기부금(회비) 1천562만 원, 국보보조금 900만 원, 이월금 342만 원 등 합계 2천810만 원의 세입을 계상하고 있다.

홍헌일 감사, 감사보고

홍헌일 감사는 서면 감사보고에서 모든 결산관련 서류가 정관 제16조와 39조에 따라 원만하게 정리되었으나, 임원 및 회원의 회비납부가 너무 저조하다고 지적하였다.

회의가 끝난 후 오찬을 함께 했으며, 참석자들에게 “홍범도장군 학술회의 종합논문집”을 배포하였다. 이 논문집은 전국에 있는 대학 도서관과 독립운동사 연구학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홍범도장군 학술회의 종합논문집”은 기념사업의 총체적 결실

장군의 헌신적인 무장투쟁정신을 국군의 호국의지로 접목시켜야



이 중 찬

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

우리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가 지난 2005년 창설된 이래, 2016년까지 12년간 매년 부단하게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3월 8일 개최된 기념사업회 총회를 계기로 종합논문집을 발간하게 되어 회원 여러분들과 더불어 보람과 긍지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이 논문집은 그 동안 홍범도장군을 연구한 결과의 총체적 결실이라고 자부한다. 홍범도 장군과 무장투쟁을 연구하신 관련학자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위인의 삶과 생각, 그리고 행적을 이 만큼 꾸준히 탐사하고, 밝히는 작업이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무장독립운동사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연구 열정과 길림성과 연변에 있는 동포들의 봉오동을 사랑하는 지극한 애정과 홍 장군에 대한 흠모의 정, 그리고 카자흐스탄에 있는 고려인 동포들의 장군에 대한 동지적인 존경심, 그리고 장군께서 말년에 고투했던 삶의 궤적을 남기고자 하는 동포들의 깊은 역사 의식이 오늘의 기록을 남기게 하였다. 누구하나 소홀하지 않으려는 마음, 누구하나 애틋한 마음없이 이런 기록을 남길 수 없을 것이다.

종합논문집이 지금은 비록 비매품으로 제작을 했지만, 홍범도 장군과 무장독립투쟁을 연구하는 각계각처에 배포하여 독립운동사 연구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학술회의를 매년 개최하여 더 보충해 나간다면 역사적인 문건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홍범도 장군은 빈손으로 대일항쟁을 시작했다. 일본 정규군의 중화기를 상대로 싸우는 우리 무장독립군의 무기는 열악하기 그지없었다. 포수라서 동물을 포획하는 데는 충분할지 모르지만 중무장한 일제 정규군과 싸우는 데는 형편없이 열세한 장비였다.

그러나 봉오동에서, 청산리에서 세계적인 최고 정예군이라는 일본군과 싸워서 승리했다.

이는 마치 베트남에서 페타이어로 만든 샌들을 신고, AK 소총으로 중무장한 프랑스군과 미군을 상대로 싸운 베트

남군과 비견된다고 할까?

이런 전쟁의 역사를 보면, 전투에서의 승리는 결코 무기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좌우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얼마만큼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투철한 의지가 있느냐, 얼마만큼 이 전쟁이 나의 생명과 바꿀 가치가 있고, 싸울 각오가 되어 있는가? 즉 강한 애국심과 굳건한 역사의식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홍범도 장군은 전투할 때마다 모든 것을 걸고 싸웠다. 심지어 부인과 두 아들까지도 걸고 싸웠다.

오늘날 우리 군인들에게 이런 정도의 희생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1백분의 1이라도, 홍범도 장군의 그림자라도 배웠으면 하는 마음이다.

우리 형편에 과분한 국방비를 쓰고, 외국의 첨단무기는 모두 구비하려는 안이한 마음가짐을 보면, 요즘 우리 군의 전투의지는 너무 해이하게 비쳐진다.

홍 장군이 가졌던 인간으로서의 결기와 단호한 의지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급과 보직에 매달리고, 자리에 군임하고, 무사안일하게 군무에 임하는 모습으로 단정한다면 너무 지나친 평가일까?

홍범도 장군은 적과 싸우기 전에 먼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겼다. 부하들을 형제들처럼 보살피는 자비로운 지휘관이지만, 군율에는 엄격했다. 부정이나 비리를 저지른 부하에게는 단호했고 용서하지 않았다. 이러한 자세는 우리 군이 배우고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 아닌가 생각한다.

사실 옛날부터 군대에서의 최악의 적은 외부세력이 아니라 썩어버린 내부의 적이었다. 이제는 우리 군에서 독립군의 무장투쟁정신을 배워야 한다.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군들은 아무런 대가나 보상, 명예도 없이 자신의 주체적인 결의에 따라 오직 조국광복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헌신적인 희생정신을 계승해야 한다.

우리 기념사업회에서 지금까지 연구해온 독립운동의 실제와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 군이 독립군의 투철한 애국심과 불퇴전의 결기를 이어받도록 정신교육을 독려하는데,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해야 하겠다.

“날으는 홍범도장군가” 작곡자 홍성규 교수, 회보 “날으는 홍범도장군” 제호를 쓴 송하경 교수 기념사업회에서 감사패 수여

이번 2017년도 총회에서는 그 동안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에 공로가 많은 두 분 교수께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그 동안 기사만 전해오던 “날으는 홍범도장군가”에 곡을 부쳐 장군의 업적을 찬양하는 계기를 마련한 홍성규 교수와, 기념사업회 회보 “날으는 홍범도장군”의 제호를 쓰신 우산 송하경 성균관대 명예교수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홍 교수가 작곡한 때가 5년 전 2012년으로 봉오동전투 제92주년 전승기념식에서 처음 합창으로 부르게 되었다,

홍성규 교수, “독립군의 힘과 기백을 선율에 담으려고 고심”

홍 교수는 감사패를 증정받은 소감을 다음과 같은 글로 보내왔다.

“가사로만 전해오던 <날으는 홍범도가>의 선율을 작곡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족의 독립을 위해 힘쓰신 홍범도 장군에 대해 알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었고, 만들어진 노래를 제자들과 함께 합창하면서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창가’라고 통칭되는, 일본을 통해 유입된 서양식 5음 음계가 주를 이룬 시기였습니다.

이 노래는 당대의 음악어법을 고려하여 장조 5음 음계로 만들었으며, 가사에서 전해지는 독립군들의 힘과 기백을 선율의 리듬에 반영해 보려 고심하였습니다. 애국이나 민족애와 같은 단어가 생소해 진 이 시대에, 민족의 지도자이시며 우리 군의 모범이 되시는 홍범도 장군의 업적을 기리는 일에 힘쓰고 계시는 기념사업회의 여러 어르신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편 우산 송하경 교수는 성균관대 명예교수이며, 강암 송

성룡기념사업회 이사장인 저명한 서예가이다. 송 교수는 3년 전에 기념사업회의 요청을 받고 제호를 썼는데 감사패를 받게 되니 감개무량하다며,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 고 말했다.

송하경, “회보 받을 때마다 분신으로 생각하며 장군의 애국심 배워”

송 교수는 소감에서 “회보를 받을 때마다 나의 분신을 보는 것 같고, 알찬 편집으로 홍범도 장군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의병으로 학자들이나 스님들이 많이 참여했던 것과 같이, 항일독립운동에 대유학자 의암 유인석 선생이 의병장으로 참여했습니다. 우연하게도 의암의 자(字)는 여성(汝聖)이고, 홍범도 장군의 호는 여천(汝千)입니다. 홍범도는 자신 보다 26살 연상인 의암을 철원 전투에서 만난 이후 편지를 주고받으며 연해주에서도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홍범도 장군에게 여천이란 호를 지어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암이 쓴 편지에 홍범도를 여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송 교수는 유학을 전공한 학자로 유학자다운 소감을 말했다.

또한 송 교수는 “홍 장군은 일자무식의 사냥꾼 정도로 많이 알았으나 블라디보스톡 문서 보관소에서 발견된 그의 친필 편지를 보면 그는 문무를 겸비한 굉장한 학식있는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이 회보를 통해 홍 장군의 독립운동 업적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어, 장군의 무장 독립투쟁을 찬양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데 크게 기여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부연하였다.



〈감사패 받은 홍성규 교수〉



〈감사패〉



〈송하경 명예교수〉

2016년도 임원 송년회 성황리에 개최

우리 기념사업회에서는 지난 12월 29일 오후, 중구 태평동 오양수산 씨푸드에서 이종찬 이사장을 비롯한 기념사업회 임원들이 모여 송년모임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 이사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념사업회를 원만히 운영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준 임원들을 격려하였다. 이영철 이사는 임원들이 비공식적이라도 자주 만나 친분과 우의를 돈독히 하는 것이 기념사업회 활성화에도 보탬이 된다고 제의하여 참석자들이 모두 공감하였다. 이날 회

식비용은 홍성덕 부이사장이 부담하였다.



조선일보, 봉오동전투 관련 최진동-운산 형제 관련 보도

조선일보에서는 지난 3월 8일자로 “봉오동 전투 영웅 최운산과 수남촌 촌장 라철용”이라는 제하에 봉오동전투의 실체와 전황에 대하여 기획기사로 전면으로 보도하였다.

이 기사에서는 1910년대 만주의 최고 갑부는 최진동-운산 형제로 이들이 전 재산을 투입하여 봉오동 산중에 독립투쟁 기지를 건설하고 홍범도, 김좌진 등 만주 무장투쟁세력을 모아 연합 독립군을 조직하여 봉오동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고 기술하였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보면 봉오동에서 최진동-운산 형제가 많은 재산을 형성하여 독립군을 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독립군연합부대인 대한북로독군부에서 최진동은 하나의 축으로 대표적 위상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홍범도 장군의 대

한독립군과 안무의 국민회군이 또 다른 축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특히 지금까지의 봉오동전투에 대한 국내외 연구결과를 보면, 홍범도 장군의 역할은 절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보도에서 수남촌장 라철용을 부각시킨 것은 대단히 반가운 일이며, 다행스러운 일이다.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 동포들이 삶의 터전을 개척하고, 독립운동의 유산을 발굴하려는 노력은 아무리 칭찬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 보도를 접한 한 독자는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업적을 과장하고 상대방의 공로를 폄하하는 나쁜 폐습이 상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역사에 관한 한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잣대를 적용해야 될 것이다.

카자흐스탄 하바르24 국영방송, 홍범도 장군 관련 방영



카자흐스탄 하바르(KHABAR) 24 국영방송에서는 지난 3월 1일 오후 11시, 약 1시간 동안 홍범도 장군의 무장독립투쟁과 강제 이주이후 카자흐스탄에서의 활동에 대하여 방영하였다.

특히 홍범도 장군에 대한 한국에서의 평판과 기념사업에 대해서는 하바르 방송 서울 특파

원인 최 블라디슬라브가 홍범도기념사업회를 방문하여 황원섭 이사와의 인터뷰로 진행하였다.

최 특파원은 홍 장군의 무장독립투쟁 내용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게재되어 있고, 무장 투쟁의 최고 지도자로 평가되고 있다는 설명에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장군께서 주도한 청산리대첩은 세계 이민족 해방투쟁사상 최대의 승전이라는 사실과 우리나라 최신에 잠수함의 함명이 “홍범도함”이라는 얘기를 관심있게 들었다.

기념사업회에서는 홍범도 장군 관련 사진과 KBS 보도 자료를 제공하여 모두 방송에서 직접 인용하였으나 카자흐스탄어로 방송하여 구체적 내용은 파악하기 어려웠다.

국제한민족재단, “아리랑 회상열차”(연해주-중앙아시아) 답사계획

국제한민족재단(상임의장 이창주)에서는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기념사업으로 “아리랑 회상열차”(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까지)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의 참여를 요청해 왔다.

7월 23일부터 8월 4일까지 13박 14일 일정으로,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하여 6,500km를 답사한다. 8월 2, 3일에는 카자흐스탄 알마티 국립대학교에서 한민족 포럼과 홍범도장군 추모제 및 고려예술단 공연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체 모집 인원은 80명이며 참가비는 450만원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회원은 3월 말까지 기념사업회로 연락 바란다.

〈자매결연 홍범도함 소식〉



〈제97잠수함전대 창설 및 초대 전 대장 취임식〉

전대장 최종필 대령이 지휘하는 “선도하는 잠수함 전대” 제97잠수함전대에 예속

2월 1일부로 제97잠수함전대가 창설되어 홍범도함과 이범석함이 예속되었으며, 초대 전대장 최종필 대령은 취임 후 “善導하는 잠수함 전대”라는 표어 아래 예하 잠수함의 완벽한 인수 및 전력화를 위한 지휘활동을 실시하였다. 특히, 취임 후 2월 9일 포항에 있는 홍범도함을 방문하여 완벽한 함인수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승조원들을 격려하였다.

홍범도함, 비호(飛虎)가 되기 위한 첫 날개를 펴다!

홍범도함은 지난 2016년 10월 17일, 국가 전략부대인 잠수함사령부의 자존심을 지키는 “최정예 잠수함”이 되기 위한 힘찬 첫 항해를 시작했다. 승조원들은 완벽한 성능을 발휘하는 잠수함을 인수하여, 홍범도 장군의 정신을 계승한 “홍범도함”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해군의 비수(匕首)가 되기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여 전술을 연마하고 있다.



〈홍범도함 첫 항해 및 최초 잠항항해 기념〉

강정호 함장 지휘로 생존성 향상을 위한 소화기 훈련

함장 강정호 대령을 중심으로 “최정예 필승 잠수함”이라는 하나 된 구호 아래 철저한 교육·훈련을 통해 잠수함 승조원으로서 가져야할 실력을 배양하고 있다. 특히, 잠수함 내에 화재발생시 승조원들의 생존성 향상을 위한 실전적인 소화훈련을 실시하는 등 각종 교육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잠수함 內 화재상황을 대비한 실전적인 소화훈련〉

상호소통과 전우애, 인화단결을 위한 정신전력 강화훈련

함장을 중심으로 승조원과 상호소통을 도모하고, 전우애 함양 및 인화단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매주 단체 체육활동을 통해 승조원들의 전투체력을 증진하고 승조원들의 정신전력 강화 및 역사의식 함양을 위한 인근 지역일대(포항/경주) 문화 탐방과 유적지 답사를 실시하였다.



〈경주지역 문화탐방〉

기념사업회 주선으로 홍범도함 제천시와 자매결연 체결 예정

홍범도함은 우리 기념사업회 주선으로 제천시(시장 이근규)와 3월 20일 자매결연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당초 3월 중에 자매결연식을 거행하려 했으나 대통령 선거를 고려하여 5월 중순으로 연기되었다.

〈임원 기고〉

홍범도 장군의 교훈과 대한민국의 장래

“홍범도 장군과 같은 강력한 리더십을 실천하고
선공후사 정신이 투철한 대망의 지도자가 나와야”



김 유 진(기념사업회 고문)

필자는 본래 독립운동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 1990년 이전에는 국내에서 무장독립투쟁에 대하여 연구하지 못했던 암울한 시기였기에 당연한 귀결인지 모른다. 20여 년 전 사업 관계로 중국을 왕래하면서 연변에서 홍 장군의 독립운동 얘기를 듣기 시작했고 장군과 독립운동에 매료되어 2년여 동안 장백산 계곡을 누비고,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 현장을 답사하면서 홍범도 장군의 거룩한 업적을 만나게 되었다. 청산리전투에서 가장 처절했다는 어랑촌 서남방 874고지에도 올라가 “물러서지 말라! 여기가 우리의 무덤이다!”라고 독전했던 장군의 우렁찬 목소리도 느낄 수 있었다. 이때 발로 뛰어 수집한 얘기 보따리를 풀어 2007년 “피어린 장백산”이란 책을 출판하여 홍범도 장군의 위업을 정리하였다.

일본이 명치유신을 일으키고 얼마 되지 않아 우리나라에 불세출의 영웅 홍범도(洪範圖 1868. 8. 27~1943. 10. 25) 장군이 한 머슴(洪允植)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원래 우리 역사상 최초로 민병대를 일으켜 부패한 왕정을 타도하고 혁명하려 했던 홍경래의 후손이다. 그 혁명이 실패하여 역적의 자식으로 몰려 피해서 숨어 다니다가 평양의 북촌에서 그 아버지가 머슴 살던 집에서 태어났던 것이다.

어려서부터 힘이 세고 용감하여 범 같은 아이라고 하여 이름을 범도라 했다. 후에 홍범도 장군이 독립군 대장이 되었을 때에는 일본군들이 “날으는 홍범도 장군”이라고 불렀다. 일찍이 조실부모하고 15세 때 18세라 속이고 구한말 군대인 진위대에 나팔수로 입대해서부터 의병과 독립군의 길을 걸었다. 함경도 북청 후치령전투를 시작으로 산수 갑산 등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고 친일파 일진회를 상당수 처단하고 마침내 북만주로 가서 1920년 6월 봉오동에서 일본 정규군을 격파했고, 그해 10월의 청산리전투에서 역사에 길이 빛나는 청산리 대첩을 이끌었던 것이다.

그후 일본군의 대대적인 압박으로 대한독립군을 이끌고 노령으로 갔다가 강계이주 등 수많은 시련 끝에, 독립을 보지 못하고 해방 2년 전인 1943년 10월 25일에 75세로 카자흐스

탄에서 한 많은 일생을 마치셨다.

필자는 2013년 홍 장군의 서거 70주기 맞아 홍범도기념사업회 추모단의 일원으로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 장군의 묘소에 참배하면서 애통해 하던 슬픈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렇게 20여 년을 홍 장군의 족적을 쫓아다니면서 장군의 위대한 독립운동 정신과 애국심을 배우고, 이어받으려고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해 왔다.

그런데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 우리의 처지는 어떠한가? “이제 나라냐!” 할 정도까지 되었으니 저절로 한숨이 난다. 그리고 선열들에게 부끄러울 뿐이다.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당과 싸움은 여전하고 국민들은 사분오열되어 서로 싸우니 어찌자는 것인가! 신채호 선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를 잊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하지 않는가? 정신 차리지!

중국의 억지논리로 먹고 사는 문제인 무역거래에서 손해를 좀 보더라도, 죽고 사는 문제인 북한의 핵공격으로부터 방어하려는 사드배치는 과감히 진행시켜야 한다. 기왕 탄핵문제가 일단락되었으니 이제는 국민을 모두가 화합하고 단결하여 밝은 내일을 열어가야 되겠다. 홍범도 장군 같은 강력한 리더십을 실천할 대망의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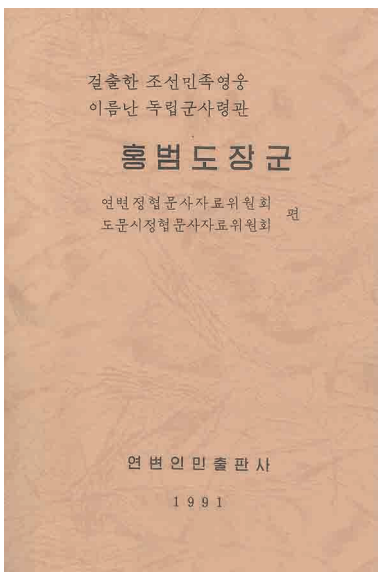
본립도생(本立道生), 사즉생(死即生) 정신으로 진군한다면 사는 길이 생기기 마련이다. 홍범도 장군은 비록 “흙수저”로 태어나 나라로부터 받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지만, 가족을 비롯한 모든 것을 바쳐 빼앗긴 조국을 광복하러 싸웠던 뜨거운 열정을 배워야 한다. 홍범도 장군의 폭 넓은 포용력, 그리고 부하를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과 사심없는 선공후사(先公後私)정신에 투철한 지도자가 나와야 혼란에 빠진 나라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의 한국 형편을 바라보면서 한국이 문(文)에 너무 치우쳐서 무(武, 군사력)를 경시한 탓에 역사적으로 몽고군의 침략, 병자호란,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6.25전쟁 등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시련을 당하였는가? 정말로 이순신 장군, 홍범도 장군, 김경천 장군, 안중근 장군, 윤봉길 의사, 우당 이회영 선생 같은 애국적 선각자와 훌륭한 애국 영웅들이 생각나는 상황이다.

강릉권·김석 공저

“걸출한 조선민족영웅, 이름난 독립군 사령관 홍범도 장군“

1988년 출판된 왜곡된 “실록 홍범도 장군”의 대안으로 출판



이 책은 머리말에서 기술했듯이 김파(도문시문화국 창작원), 복정섭, 황길현 등 세 명이 공저한 가짜 “실록 홍범도장군”이 1988년에 서울에서 출판됨에 따라 진짜 홍범도 장군을 알려야겠다는 일념으로 출판한 것이다. 홍범도 장군과 같은 위대한 역사 인물을 임의로 왜곡하고 모독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용인할 수 없다고 연변사학계의 명예를 걸고

집필했다고 한다. 강릉권과 김석(본명 김택) 등 역사일꾼들이 6년 동안 자료를 수집하고, 전직지 현장 답사, 그리고 소련의 고려인 작가 김세일, 김기철, 태장춘의 부인 이함덕, 헬싱키 국립대학 고송무 교수 등 국내외 학자들의 협조를 얻어 정리한 “홍범도 장군”을 김석이 보완 정리하고 연변정지협상회의문사자료위원회와 도문시 문사자료위원회 명의로 연변인민출판사에서 발행한 책이다.

공동저자인 강릉권은 45년 출생, 연변대 조선어문학부 졸업, 교사생활을 하다가 연변역사연구소에서 근무했다. 김석은 36년생으로 중화통신학원에서 5년간 고대한어를 전수했고, 중앙민족문학원에서 철학·정치경제학을 전수한 후 23년간 군대에서 선전부에서 일했다. 연변신문사 부총편집, 주로 정협 비서처장 겸 문사자료위원회 주임을 역임했다. 저서에는 동춘서, 룡성개척사가 논문 등 350여 편을 가진 학자 언론인이다. 이 책에서는 “실록 홍범도 장군”의 오류와 왜곡을 바로 잡아, 홍 장군의 출생지를 평양 서문안 문렬사 부근으로 바로 잡았다. 실록에서는 함경북도 경성군 태생인 홍종학(일명 홍종림)으로 홍범도 장군의 생애와 업적을 덧붙여 묶은 가짜 홍범도의 인물전기이다. 홍범도 장군의 이름을 빈 홍종학은 5남2녀의 자식과 손자 손녀 손부를 포함 수십 명의 자손들이 등장한다. 출생, 사망일도 다르고, 룡정시 화전자 수풍동의 묘소도 홍종학의 것이다. 조선족 3인이 연변에서 각

본을 쓰고, 한국에서 공연한 셈이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외롭게 자란 불행한 소년 홍범도는 국절 많은 청년시절을 보내면서 항일 의기로 항일 의병대를 창립하고, 후치령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의병대를 재편성 확대하면서 탄약을 자작하여 삼수, 갑산 싸움에서 승리한다. 의병대의 둔전을 마련하고 국내 진격전을 계획했으나 실패하다.

연변에서 재기하여 항일 무장부대의 연합작전으로 최초로 대한독립군이 일본 정규군과 싸워 1920년 6월 봉오동전투를 대승으로 이끈다.

1920년 10월, 6일 간에 걸친 청산리, 백운평, 어랑촌, 고동하에서 일본정규군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이룬다. 그후 연해주로 이동하여 자유시 사변을 겪고, 1937년 스탈린의 강제이주 정책에 따라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한다. 그곳에서 만년을 보내다가 광복을 2년 남기고 파란만장한 일생을 마쳤다.

부록으로 소련거주 김기철의 “홍범도장군의 전투경로와 소련에서의 만년생활”, 고송무의 “홍범도에 대한 새로운 조명(자료적 측면에서)”, 송우혜의 “최근 홍범도연구에 나타난 몇 가지 문제”, 강릉권의 “홍범도장군 사망설에 관한 고찰”, 태장춘의 “실화회곡 홍범도”, 끝으로 홍범도 장군 연보(1868~1943)를 수록하였다. 이 자료들은 국내외에서 홍범도 장군을 연구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사료적 성격을 가진 소중한 내용이다.

우리가 역사를 아는 만큼 미래가 보이며 그 역사의 교훈을 통해 우리의 나아갈 길을 알게 된다고 본다. 이 책은 홍범도 장군의 일생을 통해 가난과 멸시, 천대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성장했으며, 일본군을 몰아내고 평화로운 조국을 위해 아내, 장남과 차남까지 바쳐 항일투쟁을 전개한 독립군의 영웅을 기리고 있다.

이 책은 1991년도에 출판되었다. 중국과 외교관계가 수립되지 않아 국내 학계에서 홍 장군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기 이전의 저술이고, 연변 역사학계의 결정판이므로 학문적인 가치가 높은 책이다. 국내 학계는 흡사 불모지 시절에 연변의 사학계에서 가짜로 왜곡된 “실록 홍범도 장군”을 준열히 비판하고, 왜곡된 부분을 바로 잡는 이 책의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독을 권유하고 싶다. (홍범도장군, 연변인민출판사 간, 1991)

(정리: 홍성덕)

임원동정

○이종찬 이사장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건립위원회 회장은, 그동안 추진해 오던 기념관 건립계획이 확정되었다. 지난 2월 8일 서울시장이 구(舊) 서대문형무소에서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을 비롯한 '3.1운동 100주년 맞이 서울시 기념사업 계획'을 발표하였다. 임시정부 기념관은 현 서대문구의회 자리에 2019년 3월 1일까지 건립할 예정이다.

○홍성덕 부이사장



5월 30일(화) 오후 6시 마포아트홀에서 열리는 시그니처 뮤지컬 합창단 콘서트에 홍성덕 부이사장 부부가 출연한다.

홍 부이사장은 테너 가수이며 부인 이명대 여사는 소프라노 가수이다.

○이우재 고문



(사)매한 윤봉길 월진회 회장은 2월 20일부터 3박4일 동안 회원 10여 명을 인솔하고 동북아평화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중국 하얼빈을 방문하고 안중근 기념관, 동북아시아 기념관, 정율성기념관과 일제 731부대 등을 관람하였다. 오는 4월 29일과 30일에는 윤의사의 상해 의거일을 맞아 예산군 덕산군 충의사에서 매한 윤봉길 평화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영철 이사



지난 2월 9일 도봉구민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도봉문화원 정기총회에서 회원 만장일치로 제5대 문화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이 원장은 과거 10여년 전에도 11년간 도봉문화원장을 역임한 “도봉문화 지킴이”이다.

○홍성중 이사



남양홍씨남양군파대종회 회장은 3월 23일 오전 11시 동대문청소년수련관 강당에서 201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총회가 끝나면 춘계 시향행사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준비 중에 있다.

○홍이표 이사



1월과 3월 애지모 가족들과 함께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관람하였다. 일제강점기 만행을 되새기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애국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다.

○김삼웅 관장



전 독립기념관장은 대전상생방송사 주관으로 3월 15일 오후 2시, 2시간 동안 “홍범도의 생애와 독립운동 업적”에 대하여 강의할 예정이다.

○장세운 소장



행하였다.

지난 1월부터 동북아역사재단 한일관계연구소장으로 부임하였다. 작년 12월에는 “남만주 최후의 독립군사령관, 양세봉 장군”을 역사공간출판사에서 발행하였다. 2월 25에는 단국대학교 출판부에서 “한국독립운동의 세계사적 성격”이라는 책자를 공저로 간

○박재옥 사무국장



지난 2월 말, 재무관리 교재를 저술하여 GMC 교육원에서 출간하였다. 박 국장은 GMC 교육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재무관리를 강의하고 있다. 한편 작년 연말 총회에서 경영지도사 동기회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김환길 교장



서울중등독립운동사교육연구회 회장은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지난 1월 19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김태빈 잠신중학교 교장을 차기회장으로 선출하고, 상임고문으로 추대되었다.

○박명구 선생



지난 5년 동안 우당청소년육사교실에서 봉사 교사로 활동하다가 2017년도 새학기부터 중국 파렌에 있는 한국국제학교에서 2년간 교환교사로 부임하기 위하여 출국하였다.